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만열



먼저 오랜 동안 심사숙고해 오던 동북 아역사재단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작년 3월, 일본은 새로 출간한 검민정 교과서를 통해 한국사 왜곡을 강화했고, 이에 항거하는 한국민을 조롱하더라도 하트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까지 출간했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 독도 문제 등에 대처하던 정부는 이런 사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바른역사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동북 아역사재단설립의 한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일본의 한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 공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두 기관을 고려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와 고구려역사재단이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왜곡에 대해 한국인의 항의가 빚발치자 고이즈미 총리가 내한, 제안하여 설립한 것으로 2002년 5월부터 3년간 한일역사학자들이 합동연구활동을 폈다.

이에 비해 고구려연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고구려역사를 비롯한 한국의 고대사를 훼손하자 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그 동안 주변국의 역사도전에 대해 우리의 대응은 이렇게 대증요법(對症療法) 식이었다.

일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허겁지겁 기구를 만들고 방법을 강구했다는 뜻이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일부 고위층조차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에 즈음하여

도 이런 대증요법에 안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대처방안이 갖는 한계에 대해 관련 학자층과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바른역사기획단과 고구려역사재단이 통합,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이달 28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인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

적 종합적인 연구 분석과 체계적 전략적 정책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도, 동북아시아 역사정립과 독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동북아역사사와 독도 관련 전략 정책의 개발 및 대정부정책 건의, 관련사항에 대한 홍보 교육, 독도 등에의 표기관련 오류시정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정착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안고 있는 과제는 지

벌시킴으로써 더 강조된 것은 정책기관으로서의 성격이다.

그러나 정권에는 엄연히 연구기능이 앞서 명시되어 있다. 연구 없이는 정책수립이 불가능하고 또 대외관계 정책수립이 증거와 진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은축된 연구가 대안적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재단은 관민·민관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관의 효율성은 바람직하지만 그 경직성은 연구와 대안정책에서 나타나야 할 창의성과 기민한 처변(處變)성을 저해할 수 있다. 때문에 행정력이 관여할 수 있는 공간과 민간두뇌들의 창의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출발 때부터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재단의 활동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생적인 제휴다. 재단이 다루려고 하는 의제는 이미 국내 공산당이 상당히 정도에 관여해왔다. 그 점에서 제휴와 지원이 불가피하다. 북측과 협력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또 재단의 연구와 대안정책이 대부분 국제성을 띄게 될 것으로 세계의 학계 및 관련기관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그들과 공동연구하고 때로는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전 국무위원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무안 고속도 '평동 진입로' 서둘러라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벌써부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 고속도로와 평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설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무안 고속도로는 광주와 무안 국제공항, 무안기업도시, 남악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광주·전남지역의 중추도로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개통되는 국가지원도로(국지도) 49호선(해남~원주)과 연결돼 전남을 중심으로 국토의 남북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다.

평동산단 진입로는 광주~무안 고속도로와 국지도 49호선과 동시에 연결되는 총 연장 1.8km의 도로다. 이 진입로가 개설되면 평동산단을 포함한 광주시 산업물류는 무안국제공항, 목포항은 물론 강진도 등 북부지역으로의 이동이 훨씬 용이해지고 2008년 분양 예정인 평동2차공단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건교부는 평동산단 진입로가 지방도라는 이유로 개설을 광주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은 아예 무산되거나 그 시기가 크게 미뤄질 것이 뻔하다.

국토연구원개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기반시설은 국가가 나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평동산단 진입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개설해야 한다는 도공이나 건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광주~무안 고속도로와 국지도 49호선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평동산단 진입로는 시급히 개설돼야 한다. 국가의 주요 간선도로가 사소한 진입로 때문에 질림받이 도로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도공은 지난 2004년 광주시와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日 '아베 총리' 시대...한일관계 정상화되나

20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예상대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당선됐다. 아베 총재는 다음 주 총리로 지명될 것이 확실하다. 일본에서 사실상 '아베 총리'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아베 정권의 출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일간에는 야스쿠니 참배를 비롯 북한 핵문제에 따른 대북 제재, 독도영유권, 역사교과서 왜곡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이 중단된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근본원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일본의 도발적 행동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집권 이후 2006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일본간의 관계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다행히 일본이 새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한국·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

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처럼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며 주변국을 무시해선 외교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군국주의가 수백만 아시아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그 책임을 부인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새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로 주변국 국민의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정상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야스쿠니 참배를 꼽고 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하고 미래지향적 자세를 보일 때 양국은 동반자관계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요즘 신세대 남성의 대다수는 배우자 조건으로 맞벌이를 희망한다. 외벌이로는 집 한칸 마련하고 애들 교육시키기 너무 힘든 세상이라 당연한 선택인 지도 모른다.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20대에는 60%선까지 치솟았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에는 50%

업주'도 적지 않은 것이 요즘 세태다. 피부과를 찾는 주부 습진환자의 10%가 남성이란 확인되지 않은 통계가 있다.

'아버지는 돈을 벌며 가정을 이끌고 어머니는 가족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안정에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에는 50%

대한 설명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달린 시대상을 반영, 남녀간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이같은 내용을 교과서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일하는 엄마, 가사 돌보는 아빠 등 남녀간 성역할 분담에 대한 새로운 내용으로 교과서가 꾸며

가사 돌보는 아빠



진다고 한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20대 남성 10명중 7명이 배우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다면 가사를 전담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여성전업주부보다 남성 '전업주부'가 더 많아지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재일

우리나라에서 길러지는 개들에게 10여 년 전부터 심장사상충이라는 전염병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 질병은 우리나라에 없던 질병으로 1990년대에 애완견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비교적 신종 전염병이다. 따라서 아직도 상당수의 애견인들이 이 전염병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장사상충은 그 병에 감염된 개의 혈액을 모기가 흡혈한 후 건강한 개의 혈액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된다. 감염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감염된 개의 체내에 개체가 적으면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움직이는

위해 다양한 처치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15% 정도의 가정에서 애견을 기르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동거 동락해온 친근한 우리의 견종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적극적인 예방법은 1년에 1회 감염 유무를 검사하여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연중으로 비교적 저렴한 예방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차선책은 심장사상충은 환경온도 18℃ 이하에서는 그 감염력을 상실하므로 우리지역에서는 감염 유무를 확인한 후 매년 4

애완동물 죽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것을 싫어하며 가끔 기침을 하는 정도에서 수년을 살아가기도 한다. 점차 체내에 심장사상충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침·운동기피·복수·호흡곤란·폐수종·황달·혈뇨 등을 나타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광주지역 감염률만 보더라도 올들어 5월까지 광주동물보호소에 입소한 개 150여마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주로 실내에서 길러지는 소형견에서는 46%, 실외에서 길러지는 중·대형견에서는 60% 정도의 감염률을 나타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수년 내에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지 않은 개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초기에 치료를 한다면 치료율은 높지만 고가의 회귀 수입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중 감염이 된 경우에는 치료 자체의 부작용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월부터 10월까지 빠짐없이 예방약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알라스카에서 길러지는 개에게도 그 감염률이 낮을 뿐 심장사상충은 존재한다고 하니 요즘처럼 사할 모기가 극성인 환경에서는 연중 예방약을 투여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예방약은 심장사상충의 예방은 물론 소화기관 내의 기생충까지 사멸시킬 수 있으므로 그 유용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기생충까지도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다. 부디 애견인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인생의 또다른 반려자로서, 가족의 일원이 되어버린 반려동물(伴侶動物)의 고통과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기를 호소해 본다.

(서천동물병원 원장)

기고



백창순

요즘 젊은 층에게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출산율이 점차 낮아져 후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현 세대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선배세대가 일정 부분 경제부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세대간 갈등이 표출되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도록 공적 연금을 폐지해야 한다 등 3가지 중 어떤 답변이 많을까.

부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바라 보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10명중 8명은 아마 현 세대가 더 부담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젊은 층이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고,

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국가가 책임 지라'는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결국 세대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후세대 젊은이가 연금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2050년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젊은이 1.4명당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예측결과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젊은 층이 공적연금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제도개선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능사가 될 수 없다. 공적연금의 존폐, 개선이나 현 세대의 노후 준비 정도는 후손들이 장래에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수준과 직결된

연금법 개정운동 젊은층이 나서야

제도가 불리하다고 공적연금을 폐지했을 때 발생하게 될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는 무엇일까?

국민 10명중 1명의 고소득층은 공적 연금에 의한 미래준비가 필요 없을 것이고, 공적연금의 존폐에 관심 밖일 것이다. 반면에 국민 10명중 3명의 저소득층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6명의 어떨까? 주택구입비, 자녀교육비, 경조사비 등 당장 지출해야 할 항목이 많은 현실에 허덕이느라 노후준비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민의 50%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가정해 보자. 이들에 대한 노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공적연금이 폐지되면 '공평한 노인문

다. 왜냐하면 선배 세대가 준비한 만큼 후세대의 부담은 줄어드나 준비하지 않은 만큼 고스란히 후세대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젊은 층이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이제라도 연금법 개정 운동에 좋은 의견을 내고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가 되도록 신속한 개정운동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나와 가족만 잘 살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노후문제는 부자도, 젊은이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선배 세대들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내 자녀, 내 후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후배사랑의 또 다른 모습임을 기억하자.

(국민연금광주시지사 백창순 차장)

대형차량 경적소리, 승용차 운전자 위협

얼마전 시내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들의 경적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한차량보다 다차차한 제 주·정차된 화물차량과 컨테이너 차량들 때문에 조심조심 주행하고 있는데, 뒤따르는 대형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것이다.

경적 소리가 얼마나 큰 지 짹짹 브레이크를 밟았다.

도심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컨테이너 차량은 큰 차체만으로 앞차로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편한 불안감을 준다.

그런데 경적 소리마저 크게 내면 운전자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 여성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형 차량 기사들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경적을 울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박종심·목포시 동명동

병원 대기실 분리해서 운영했으면

얼마 전 세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많아 기다려야 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아이도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시작했고 며칠동안 병원 신세를 봐야 했다. 외국처럼 병원 대기실을 분리해서 운영했

으면 한다. 병원 대기실은 온갖 환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전염성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별도로 대기실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환자를 위한 조치다.

병원에서 병이癒졌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림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